

■ 불황 직격탄 지역경제... 곳곳 경고음

지표·심리 '꽁꽁'... 재고만 쌓여가

내수·수출 급락... 투자·설비도 하락세로

확박해진 서민가계 금융권 대출 '눈덩이'

광주·전남 경제가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 모두 하락세가 심화되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해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산업연구원의 '광주지역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광주지역 올해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중 매출 70으로 전년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또 경상이익도 66으로 9포인트나 크게 감소했다.

내수는 78에서 69로, 수출은 74에서 64로 하락세가 심화됐고, 반면 재고는 113에서 132로 19포인트나 크게 증가했다.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투자는 106에서 99로 하락세로 전환됐고, 설비가동률은 85에서 82로 떨어졌다.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경상이익(75→66)과 자금사정(92→80)으로 악화됐다.

경기지표 악화는 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4월 -5.8%에서 5월 4.5% 증가율을 보이다가 6월 -0.4%로 감소했다. 2분기 전체로는 -0.6%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6.9%, 올해 1분기 -5.8% 등 3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생산이 줄어들었다.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도 1분기 0.1%에서 2분기 가정의 달의 영향으로 2.1%로 증가했다. 하지만 월별로 보면 4월 5.1%, 5월 2.0%, 6월 -0.7%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특히 전남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0.3%, 3분기 -2.4%, 4분기 -1.2%, 올해 1분기 -3.0%, 2분

■ 광주지역 주요 경제지표 (전년 동분기대비, %, %P)

주요지표	2011년			2012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광공업 생산지수	11.2	2.3	-6.9	-5.8	-0.6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3.4	3.1	1.0	0.1	2.1
고용률 증감	-0.7	0.1	0.9	0.7	-0.7
소비자물가	3.9	4.4	4.1	2.9	2.1
수출	16.8	14.1	-1.4	3.5	4.0

(자료: 통계청)

기 -0.1% 등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소매점들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가계대출도 늘었다.

상호금융 및 신용협동조합 등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57억원에서 +513억원으로 증가했다. 예금은행도 주택관련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폭(+1219억원→+1761억원)이 확대됐다.

소비자물가는 불황 탓에 안정됐다. 2분기 광주는 2.1%, 전남은 2.2% 였는데 그쳤다. 특히 6월 소비자물가는 광주 1.7%, 전남 1.8%로 1%대를 나타냈다.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광주의 경기상황은 후퇴기에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의 파급효과와 기간이 장기모드로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경기 불황은 업종을 불문하고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휴대전화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업종은 지난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60% 감소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국내의 경제 예측기관에 따르면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한국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3분기에 0% 수준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생존 자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연초부터 유례없는 '세일전쟁' 신통치 않은 매출실적에 울상

■ 지역 유통업계도 '백약이 무효'

지역 유통업계도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연초부터 '세일 행진'을 이어가며 초특가와 장기세일까지 펼쳤지만 오히려 매출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15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1~7월까지 광주신세계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줄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지역 백화점들이 지난 6월 29일~7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유례없는 장기 세일을 진행했지만 실적 부진을 만회하지 못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이 기간 지난해보다 매출이 각각 0.1% 2.5% 감소했다.

게다가 올해(30일간)는 지난해

(17일간)보다 여름 정기세일 기간이 2배 가까이 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지역 백화점들의 매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류' 부문의 매출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올 1~7월까지 여성의류 판매실적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본 결과 수입·뷰티 -3.9%, 캐리터·캐주얼 -4.1%, 영캐주얼 -2.5%로 여성의류 모든 부문에서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남성복(-0.9%), 아동복(-0.5%), 영웨이브·진(-15.0%) 등의 류 부문은 물론 구두·핸드백(-1.7%), 골프(-5.5%) 등 전반적으로 매출이 두루 감소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

마트 3사의 지난 7월 매출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매출이 7~9% 줄어 들어 역대 최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의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자체 포인트카드 회원 780만명의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 1년 전보다 구 품목(종류)은 13.4%, 구매상품 개수는 8.4%씩 줄었다. 고객 1인당 구매액도 10년 수준인 5만원 이하를 기록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시장 침체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가전이나 의류 등

담당 필요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가 15일 광주 북구 문흥근린공원에서 개최한 통일축전에서 시민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진행됐던 남북정상회담 홍보물들을 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DJ서거 3주기 내일 광주 추모식... 민주 대권주자들 대거 참석

"DJ 계승·정권교체" 책임자 경쟁

광주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민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10시30분 광주YMCA 무진관에서 3주기 추모식에 문재인·손학규·김두

관·정세균·박준영 등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5명을 초청했다.

주최 측은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김대중 대통령 정신의 업적을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을 내걸고 대권 도전에 나선 만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현재 손학규·정세균·박준영 후보는 이

날 추모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재인·김두관 후보는 기존의 공식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민위원회,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광주·전남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추모식은 '평화·희망,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추모식은 김대중 전 대통령 영상과 결과보고·추도사·추도사·추도사·헌화·참배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장병완 광주시당 위원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추도사를 하며, 김준태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추도사를 낭송한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선 경선 후보들은 추모인사를 통해 서로 DJ정신계승과 정권 재창출의 책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 김대중 대통령 추모 분향소는 광주 YMCA 무진관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운영되며, 분향소 주변에서는 김대중사진전과 인권 사진전도 열린다.

또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 광주전남본부는 15일 광주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2 CONCERT

아직도 못다한 노래...



남진

아직도 못다한 노래...

2012. 9. 22(토) 오후3시,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광주MBC | 주 관 | 문화미디어 | 제 작 | 이나이스엔터테인먼트

|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링크 | 문 의 | 220-0541 · 1600-4534

| 티켓가격 | VIP석 99,000원,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빛의만평

- 김종두



도대체 어디로 차는거야?!